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The Mother-role Burd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 아동학과

석사 진미정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옥선화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Master : Mee jung Chin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Sun wha Ok

〈목 차〉

I. 문제 제기	IV. 결과 및 해석
II. 관련연구 고찰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variables which were related with middle aged women's identification of child, mother-role burd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mother-role burd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578 who were 40-59 year old women in Seoul.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level of middle aged women's identification of child was very high and the level of mother-role burden was moderate.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slightly high. (2) Mid-life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related to education level, income and job. (3) Identification of child was related to educational level, having job and income. And mother-role burden was influenced only by education level. (4) Middle aged women's identification of child was positively related mother-role burden. Mother-role burden was nega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These findings represented middle aged mother in our society had considerable burden of child but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was not low. Possibly it is due to the fact mothers regard their burden of child as acceptable duty.

I. 문제 제기

중년기에 대한 관심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성인 후기 인구의 확대, 전 생애에 걸친 발달을 강조하는 시각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중년기는 생애 과정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전환기로서 생애 과정의 전 단계와 비교되는 발달적 특징을 보이므로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이 되어왔다. 특히 여성은 가족 구조와 가족관계가 변화하는 중년기에 큰 전이를 경험하며, 가족생활주기 상의 생활사건을 기준으로 연령의 변화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들에 비해 생활사건을 더 민감하게 지각하고 그 영향도 더 크게 받는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중년기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중년기 여성의 부정적 측면 즉 위기감이나 아노미, 갱년기 장애 등에 주목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들 연구에서 결과적으로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예상만큼 낮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보다 중립적 입장에서의 심근 즉 적응, 심리적 긴장 등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김현화, 1992; 박경숙, 1991; 상재정, 1987)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성격 특성, 성격형 성체감 등 개인의 인성적 특성이 중년기 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지니지만 가족이라는 맥락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여성이 가족 내에서 맡는 역할은 역할 상대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의 삶과 정체성의 중심이 되고 또 가장 큰 스트레스를 가져오기도 하는 어머니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어머니역할과 관련하여 보고자 할 때, 역할 긴장 이론이 유용한 틀로서 사용될 수 있다. 역할 긴장 이론에 따르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어머니역할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자녀양육이라는 부담에서 해방되는 중년기가 되면 여성의 정체성은 오히려 안정되고 심리적 복지가 증진된다(Barnett et al., 1985).

중년기 여성의 복지를 가족 내에서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조망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가설들을 검증하는 성격을 띠기보다는 중년기의 어머니역할 수행과 복지의 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전개될 것이다.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수준을 밝힘으로써, 실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족 내에서의 중년기 여성의 발달적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이해하는데 역할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이론에 기반한 후속연구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II. 관련 연구 고찰

1.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

1) 심리적 복지의 개념

심리적 복지는 신체적 복지, 물리적 복지와 함께 개인의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복지는 객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부정적,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상재정, 1987).

부모들의 심리적 복지를 조사한 연구들(Steinberg et al., 1987; Umberson, 1989)은, 부모역할의 비용과 보상 측면이 심리적 복지의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 복지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모들의 심리적 복지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심리적 복지의 구체적인 척도는 일치하지 않으나 대체로 최근의 연구들(Baruch et al., 1986; Umberson, 1989)은 자존감, 우울성, 만족도 등의 세 측면에서 심리적 복지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경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2)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 변수 고찰
 중년기 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분류될수 있다. 첫번째 경향은 중년기의 갱년기 장애, 위기감, 중간세대로서의 이중 부담, 정신적 장애 나아가 사회적 이탈행동 등 중년기의 낮은 심리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중년기의 다양한 발달적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두번째 경향은 중년기의 성취적 측면, 안정성, 결혼 만족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중년기를 전 생애과정의 절정기로 생각하여 높은 심리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 간에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각 연구의 초점이 되는 중년기의 발달적 사건이 서로 다르고, 또한 동일한 사건의 경험이라도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또는 인성 특성에 따라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령

중년기라는 생애발달 과정은 주로 개인의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에 의해 구분된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주로 우울이나 위기감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지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발견되고,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연령증가에 따라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②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수준

연령에 대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중년기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적 복지수준에 대한 선행연구들(김명자, 1989; 김현화, 1992; 신기영, 1991; Thoits, 1983; Umberson, 1989a; White et al., 1990)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중년기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계소득에 따른 심리적 복지에 대한 조사결

과들을 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의 심리적 복지가 낮은 것으로 보고(김명자, 1989; 박경숙,1991; 옥선화 외 4인, 1991; Barnch et al., 1986; Umberson, 1989a)되고 있다.

③ 취업여부

선행연구들(Barnett et al., 1985; Coverman, 1989)은 취업주부들이 비취업주부들보다 더 높은 역할갈등과 더 많은 역할부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복지는 더 낮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비취업주부들이 취업주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할갈등이나 역할부담에 따른 디스트레스,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는 취업으로 인한 긍정적 보상이 완충적인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과 심리적 복지

1) 역할 이론적 관점

역할 이론에서 역할수행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는 두가지 소이론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먼저 역할 정체감 이론(Thoits, 1983)에서는 자아는 일련의 사회적 정체감들로 구성되며 정체감은 상호적 역할관계에서 생긴다고 본다. 정체감은 개인에게 의미감을 부여하고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므로 역할이 많을수록 존재적 안정감이 커지고 심리적 복지가 높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녀의 독립은 중년기 주부에게 있어서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근래의 연구들은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수 자체가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다고 보다는 역할 내용, 역할 경험의 질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데 보다 더 영향력있는 변수라고 보고하고 있다(Barnett et al., 1985). 이러한 입장은 역할 긴장 이론으로 표명된다. 역할 긴장 이론에서는 역할 변화가 미치는 효과는 그 역할과 관련된 긴장과 갈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부모역할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역할이라는 선행연구들

(Barnett et al., 1985; McLanahan et al., 1987)을 고려해 볼 때, 역할 긴장 이론에서는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부모역할의 감소가 중년기 주부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역할 정체감 이론은 단지 소유하고 있는 역할의 수만을 가지고 역할 수행을 논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역할 긴장 이론은 역할 정체감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역할의 경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따라 역할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나 역할이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와 개인적 정체감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역할 정체감 이론과 역할 긴장 이론은 모두 자녀의 독립과 더불어 어머니역할이 상실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의 장·노년기에 대한 연구들과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들은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시기의 세대관계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관계임을 지적한다. 즉 어머니는 자녀의 독립과 관계없이 자녀에 대해 언제까지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며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어머니역할과 정체성이 여성에게 있어 가지는 중요도와 의미는 다른 역할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크므로 어머니역할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역할의 존재와 상실의 측면이 아니라 역할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 어머니들의 정체성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구체적인 역할수행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자녀가 독립하여 같이 살지 않으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계속되는 경우 만족도가 증가한다(White et al., 1990)는 연구 결과와 18세미만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의 부모가 자녀를 독립시킨 부모에 비해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Umberson, 1989), 그리고 독립할 시기에 독립하지 못한 성인자녀들과 동거하는 경우 부모들의 심리적 복지가 저하된다는 연구(Hagestad, 1986)들은 역할 긴장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역할 긴장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어머니역할이 지니는 부담과 긴장이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2)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과 관련 변수 고찰

(1)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전통적인 성역할구분과 가족주의 가치가 엄격하게 제시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가족과 모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가정지향성이 사회규범으로 강조되고 가정 내에서의 역할 수행이 여성의 일차적인 존재양식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이 주로 자녀와 남편을 통해서만 자아를 실현하고 성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부인으로서의 역할에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훈구, 1972; 허경철, 이용남, 1979)은 부모-자녀 관계가 비분화된 관계, 즉 비이원적이고 공생적인 인간 관계이며 이런 경향은 특히 부모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자녀의 발달단계와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데 성인자녀와 부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들(고선주, 1990; 김경원, 1989; 유은희, 1991; 이경희, 1988)은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간 정서적 유대가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한 이후에도 매우 밀접하고 또한 상호작용도 빈번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은 자녀에 대한 동일시와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이 높은 여성은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어머니역할에 대한 표준이 높아져, 실질적으로 보다 훌륭한 어머니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크게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머니역할과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실제 조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

(1) 연령 및 가족생활주기

어머니의 역할 내용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들(김명자, 1991; 옥

선화 외 4인, 1991; 이평숙, 1984)의 보고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역할 수행은 자녀의 학교교육과 자율성 지도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를 독립시켜야 하는 단계의 어머니 역할은 적절한 시기에 만족스럽게 자녀들이 취업하거나 결혼하도록 하여 그 시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역할 내용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부담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대체로 선행연구들(Goldsteen et al., 1989; Umber-son, 1989; White et al., 1990)은 취학전 연령의 자녀나 사춘기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②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수준

중년기 여성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역할에 관한 특정화된 연구들은 거의 없으나, 스트레스나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들(Barnett et al., 1985; White et al., 1990)에서도 부모역할에 따르는 스트레스나 역할 갈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년기의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김명자, 1991; 옥선화 외 4인, 1991; 이평숙, 1984)들은 중년기의 가족문제 중 자녀교육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가계소득 수준이 어머니역할의 수행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③ 취업여부

취업에 따른 어머니역할에 대한 연구(서동인, 1991; 조지영, 1991)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편이지만, 이들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자녀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순화(1979)는 취업주부들이 비취업주부들에 비해 어머니역할 수행도가 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역할 평가는 더 부정적으로 한다고 보고하였다. 학동기 자녀의 어머니들도 취업한 경우에 어머니역할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취업한 어머니들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동인, 1991; 유희정, 1992).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설정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및 심리적 복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수(가족생활주기, 교육수준, 가계소득수준,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은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측정도구

(1) 심리적 복지 척도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울, 생활만족도, 그리고 자존감이 조사되었다. 우울 척도로는 Johns Hopkins대학(Derogatis et al., 1974)에서 개발된 증후군척도(SCL-90-R)를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등이 번안, 수정한 간이정신건강 진단척도 중에서 우울에 관한 13항목(범위13-65점)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0였다. 자존감의 척도로는 Rosenberg (1972)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를 총 10분항에 걸쳐 7점 Likert 형으로 물어보는 것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9였다. 생활만족도 척도는 생활 전반에 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한 Campbell과 그 동료(1975)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분항의 7점 Likert형(범위 10-70점)으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8였다.

(2)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이 연구에서 변수로 하고자 하는 어머니역할 수행 부담은 아직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척도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관련연구들을 참고로 구성하였다. 먼저 중년기의 어머니역할은 한국가족의 대대적 기능을 요인분석하여 제시한 유영주(1990)의 연구와 청소년기 가족의 발달과업을 제시한 이봉선(1989)의 연구에 기초하여 내용을 선정하였다. 역할 부담은 시간 제약과 주관적 부담감의 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현재하고 있는 역할에 따르는 일들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감을 질문하는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질문은 총 18문항으로서 5점 Likert형으로 측정되었다.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 이상인 관련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각 문항은 문항분석법을 통해 변별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9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이 연구에서는 허경철과 이용남(1979)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에 관한 척도를 사용하여 중년기 여성의 자녀중심 성향을 측정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변별력이 없는 문항은 수정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의 정도는 5점 Likert형(범위 12-60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51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1992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분조사를 실시하여 총 9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746부로 약 85%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이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질문지를 제외하여 총 578부를 분석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우선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 = 578)

변 수	집 단	빈 도	백 분 율	변 수	집 단	빈 도	백 분 율
응 답 자 인 령	40-44세	261	45.7	응 답 자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150	26.0
	45-49세	165	28.5		고 졸	261	45.2
	50-54세	90	15.1		대졸이상	154	26.6
	55-59세	55	9.4				
남 편 인 령	40-44세	114	19.7	남 편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52	9.0
	45-49세	215	37.2		고 졸	186	32.2
	50-54세	114	19.7		대졸이상	302	52.2
	55-59세	89	15.4				
	60세이상	46	8.0				
취 업 상 태	비 취 업	407	10.4	남 편 직 업	무직·퇴직	23	4.0
	서비스직	78	13.5		서비스직	153	26.5
	일반사무직	31	5.4		일반사무직	144	24.9
	전문직	43	7.4		전문직	206	35.6
가족생활 주 기	3 단계	242	41.9	가 계 소 득	99만원이하	121	21.9
	4 단계	232	40.1		100-199만	277	50.3
	5 단계	104	18.0		200-299만원	103	18.7
					300만원이상	50	9.1

용하여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였고, 연구 문제 (1), (2), (3)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검증,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및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 경향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과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의 전반적 경향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은 평균 48.1점(범위 15-60)으로 척도의 중간값(36점)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은 평균 54.5점(범위 18-90)으로서 중간값(54점)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가지 결과를 결부시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중년 여성들이 자녀가 성장한 후, 심지어는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들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 경향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중년기 여성의 우울은 평균 31.3점(범위 25-70)이며 응답자의 80.4%가 척도의 중간값(39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자존감의 정도는 평균 46.3점(범위 13-63)으로 척도의 중간값(40점)보다 낮게 응답한 사람이 22.5%에 불과해 조사대상자들의 자존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도 평균 48.4점(범위 18-70)으로서 중간값(40점)보다 낮은 점수의 응답자가 20.1%밖에 되지 않아 생활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및 심리적 복지

1) 가족생활주기¹⁾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F=5.92, P<.01$)가 있으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상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연령변화에 따른 성장과 독립이 어머니들의 역할과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중년기에 이르면 자녀가 진수기에 해당되므로 어머니역할이 상실되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장·독립하여도 어머니로서의 부담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년기 여성들의 심리적 복지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 이유로서 제시될 수 있다. 즉 선행연구들의 기본 가정처럼 중년기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심리적 복지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양

<표 2>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의 전반적 경향

(N = 578)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어머니-자녀간일체감	48.09	6.47	15-60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54.46	12.34	18-90
심리적 복지			
우 울	32.31	9.16	25-70
자 존 감	46.33	7.83	13-63
생활만족도	48.37	9.27	18-70

1) 연령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으나 가족생활주기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므로 이 원고에서는 생략하였다. 그 내용은 진미정(1993)의 석사학위논문에 있음.

〈표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자녀간 일체감, 어머니 수행부담 및 심리적 복지
(N = 578)

변 수	집 단	빈도	평균	F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3 단계	242	47.10	5.92**
	4 단계	232	48.48	
	5 단계	104	49.52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3 단계	242	53.96	.71
	4 단계	232	54.43	
	5 단계	104	55.68	
심리적 복지	3 단계	242	31.48	2.11
	4 단계	232	32.63	
	5 단계	104	33.56	
자존감	3 단계	242	46.55	.36
	4 단계	232	45.99	
	5 단계	104	46.56	
생활 만족도	3 단계	242	48.29	.55
	4 단계	232	48.09	
	5 단계	104	49.21	

** P<.01

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한 중년기에도 여전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심리적 복지 수준도 생애과정의 이전 단계와 비교하여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년기 여성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서구와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어머니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행이 강조되는 한국 가족의 고유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및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검증 결과 대졸 이상인 응답자들이 고졸 이하의 응답자들에 비해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이 낮게 나타났다. 즉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어머니로서의 어려움을 덜 겪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수준이 높

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주부가 하층 주부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어머니역할 수행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유희성(199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세 측면 중에서 우울은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3.59, P<.05$)가 있으나, 자존감이나 생활만족도는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교육수준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N = 565)

변 수	집 단	빈도	평균	F	Duncan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중졸이하	150	49.65	12.01***	a
	고졸	261	48.35		a
	대졸이상	154	46.15		b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중졸이하	148	55.77	3.06*	a
	고졸	262	54.85		a
	대졸이상	155	52.45		b
심리적 복지	중졸이하	150	31.25	3.59*	a
	고졸	261	33.35		b
	대졸이상	154	31.34		a
자존감	중졸이하	150	46.19	2.81	
	고졸	261	45.77		
	대졸이상	154	47.64		
생활 만족도	중졸이하	150	47.46	2.15	
	고졸	261	48.25		
	대졸이상	154	49.62		

* P<.05 *** P<.001

3) 가계소득

〈표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F=3.94, P<.05$)를 보이지만,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응답자들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녀의 성

〈표 5〉 가계소득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및 심리적 복지 (N = 551)

변 수	집 단	빈 도	평 균	F	Duncan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121만원이하	121	49.43	3.94*	a	
	121-211만원	277	47.47		b	
	211만원이상	154	47.95		ab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121만원이하	120	55.38	1.56		
	121-211만원	277	54.54			
	211만원이상	154	52.84			
심리적 우 울 복 지	우 울	121만원이하	121	.16		
		121-211만원	277			
		211만원이상	153			
	자존감	121만원이하	120	45.13	3.31**	a
		121-211만원	277	46.38		ab
		211만원이상	154	47.58		b
생 활 만족도	121만원이하	120	46.28	5.59**	a	
	121-211만원	277	48.46		ab	
	211만원이상	154	50.06		b	

* P<.05 ** P<.01

취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우울수준에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자존감과 생활만족도에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4) 직업 유무

취업여부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비취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을 t 검정으로 비교해 본 결과, 취업한 어머니들이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들의 어머니역할 수행정도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그에 대한 보상적 심리가 자녀에 대한 높은 헌신을 나타내는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직업 유무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및 심리적 복지 (N = 559)

변 수	집 단	빈 도	평 균	t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비취업	407	47.62	-2.75**	
	취업	152	49.31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비취업	407	54.30	.03	
	취업	152	54.26		
심리적 복 지	우 울	비취업	407	32.12	-.39
		취업	152	32.46	
	자존감	비취업	407	46.02	-1.82
		취업	152	47.38	
	생 활 만족도	비취업	407	48.60	.38
		취업	152	47.26	

** P<.01

3.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수준에 따른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어머니-자녀간 일체감의 수준에 따른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은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F=3.66, P<.05)가 나타났으며 추후검증 결과 자녀와의 일체감 정도가 중간 이상인 집단의 응답자들이 어머니역할 수행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서구와 달리 중년기에도 어머니역할 수행에 따르는 부담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은 조사결과에서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높은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과 모성

〈표 7〉 어머니-자녀간 일체감 수준에 따른 어머니역할 수행부담

(N = 578)

집 단	빈 도	평 균	F	Duncan
낮은 집단	141	52.03	3.66*	a
중간 집단	257	55.32		b
높은 집단	180	55.13		b

* P<.05

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강조되는 사회의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일체감을 높게 가지며 이러한 성향을 직간접적인 어머니역할 수행으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4.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역할 긴장 이론의 시각에서 설정된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이라는 변수가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은 중년기 여성의 우울, 자존감,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여성들이 어머니역할 수행시 느끼는 부담감은 우울에 정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검증 결과 수행부담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이 중간이상인 집단에 비해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F=21.50, P<.001). 또한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은 자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추후검증 결과 수행부담이 낮은 집단의 응답자들이 중간이상인 응답자들보다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13.33, P<.001). 그리고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은 생활만족도에도 부적인 관련이 있어 수행부담이 중간이상인 집단의 중년기 여성들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13.50, P<.001).

이러한 결과는 역할에 따르는 긴장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arnett와 동료들(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어머니역할은 여성들에게 일차적인 역할로 인식되고 이에 따른 어려움이나 부담은 당연히 수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에 어머니역할이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어머니역할에 따르는 긴장과 부담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 자존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이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

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부담이 어머니로서의 자기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맞물려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즉 자녀와의 높은 일체감에 기인한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은 어머니역할에 대한 높은 표준과 자신이 그에 못미친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희성(1992)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버지들의 역할수행이 실제 수행 정도와 관계없이 이상적인 아버지상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어머니들은 아버지에 비해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어머니상과 비교하여 자신의 역할수행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어머니에 대한 표준이 매우 높으며 어머니들이 자신과 자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8)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

(N=578)

변수	집단	빈도	평균	F	Duncan	
심리	우울	낮은집단	178	28.85	21.50***	a
	중간집단	219	33.09	b		
	높은집단	181	34.78	b		
자존	낮은집단	178	48.72	13.33***	a	
	중간집단	219	45.69		b	
	높은집단	181	44.74		b	
생활	만족도	낮은집단	178	51.24	13.50***	a
	중간집단	219	47.58	b		
	높은집단	181	46.51	b		

*** P<.001

IV. 결론 및 논의

중년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실제로 중년기가 Erikson이나 Jung과 같은 발달심리학자들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개인 내적인 심리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인가 하는 의문에 기반한다. 특히 가족학 영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년기의 심리적 변화가 가족이라는 생활 토대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이 주어진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와 그

에 대한 분석 검증은 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현재 중년기 여성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심리적 복지를 보인다.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중년기가 변화와 위기의 시기라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존감과 생활만족도 그리고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심리적 복지는 중년기 내의 연령집단 간에 차이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서구와는 달리 자녀의 발달단계 즉 성장·독립 과정과 관계없이 나타난다.

둘째,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혹은 독립한 중년기에도 여전히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어려움을 다소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중년기가 자녀가 실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 정도와 그에 따른 부담이 격감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는 바와는 달리, 어머니들은 자녀의 독립을 최종학교 졸업으로 하든 결혼으로 하든 이에 따른 역할수행의 감소를 경험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중심적 성향과 관계되는 것으로 자녀를 결코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일체감을 느끼며 동일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특성이 자녀에 대한 계속적인 어머니로서의 정제감과 역할 수행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국 가족의 특성으로 인해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이라는 심리적 복지 상의 문제는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따라서 서구의 연구 관점은 다른 견지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별로 특정화시키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연령, 자녀의 발달단계,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 수준, 직업 유무 및 유형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을 파악하는데 별로 영향력있는 변수로 발견되지 못하였다. 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은 연령, 자녀의 발달단계, 경제적 여건, 직업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째,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은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년기 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이 자기 평가, 생활만족도는 물론 우울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에 대한 높은 일체감과 함께 이상적인 어머니상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중년기 여성들에게 일정 정도의 부담과 이에 따르는 심리적 복지 수준의 저하 문제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어머니역할 수행부담이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현재 중년기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부담을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요한 시점을 앞둔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수행하는 육체적, 정신적 역할 책임과 막중한 부담은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당연한 의무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항상 어느 정도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존감이나 생활만족도 그리고 우울 등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제한점들은 후속연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첫째, 어머니역할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관계의 질적인 측면과 자녀의 성장·독립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는 요인이 고려해야 되어야 하는데(Harkins, 1978; Silverberg et al., 1987a),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의 질적인 측면과 개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후속연구에서는 단순히 생활사건의 경험여부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양적·질적인 어머니-자녀의 상호작용이 고려됨과 동시에 이러한 경험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주관적 평가, 즉 자녀의 독립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규범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과정의 순서에서 벗어난 것인지, 혹은 자녀의 독립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불만스럽게 평가되고 있는 지를 고려

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에 제한점이 있다. 우울, 만족, 자존감 등의 개인적,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 조사에 응할 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는 쪽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고 보수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경우에 더 크게 드러난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현재 중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은 세대에 비해 만족과 우울 등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민감하게 분화시켜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지법으로는 심리적 상태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순간적인 변화와 기복을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는 심층면접을 통한 재접근이 보다 유용한 방법으로서 제안된다.

이 연구는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법론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내의 관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가족내에서의 역할, 특히 어머니역할과 관련하여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측면의 가족상황 특히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고려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고선주(1990).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정 모친과의 상호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경원(1989).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 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 : 중앙적성출판부.
- 4) 김명자(1989). 중년기 연구, 서울 : 교문사.
- 5) ———(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양식과 위기감, 대한 가정학회지, 29(1) : 203-216.
- 6) 김수진(1989). 여성의 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김현화, 조병은(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 201-228.
- 8) 박경숙, 김명자(1991). 중년기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 폐경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정체감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 65-80.
- 9) 서동인(1991). 맞벌이 가족의 부모자녀관계, 서울특별시·한국가족학연구회 가정복지 제2회 세미나 자료집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67-102.
- 10)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옥선화, 이기춘, 이기영, 이순형, 공인숙(1991).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의 제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2) : 135-154.
- 12) 유영주(1990). 한국 가족의 대내적 기능연구 - 가족의 기능요인 및 수행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3) 유은희(1991).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유희정(1992). 자녀교육과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181-216.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15) 이경희(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이봉선(1989). 한국에 있어서의 가족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자녀기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이훈구(1972). 공생론적 입장에서 본 부모·자녀간의 관계, 행동과학연구보고서, 1-15.
- 19) 상재성(1987).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 조지영(1991). 비영리 민간시설보육에 대한 저소득층 취업모의 보육기대, 만족 및 모성역할 지각과 갈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허경철, 이용남(1979). 어머니와 자녀의 일체감에 대한 조사연구, 행동과학연구, 8(10) : 1-12.
- 22) Barnett, R.C. & Baruch, G.K.(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 135-145.
- 23) Baruch, G.K. & Barnett, R.(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 578-585.
- 24) Bryant, F.B. & Veroff, J.(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 653-673.
- 25)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York : Russell Sage.
- 26) Coverman, S.(1989). Role overload, role conflict, and stress; adressing consequences of multiple role demands, *Social Forces*, 67(4) : 965-982.
- 27) Glenn, N.D.(1975).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postparental stage; some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 105-110.
- 28) Goldsteen, K. & Ross, C.(1989). The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 504-526.
- 29) Hagestad, G.O.(1986). Demensions of time and the famil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6) : 679-694.
- 30) Harkins, E.B.(1978). Effects of empty nest transition on self-report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 549-556.
- 31) McLanahan, S. & Adams, J.(1987).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nual Review of Socioligy* 13 : 237-257.
- 32) Neugarten, B.L.(1968). The awareness of middle age, In B.L. Neugarten (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3) Steinberg, L. & Silverberg, S.B.(1987b).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during the middle stage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 751-760.
- 34) Thoits, P.A.(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 174-187.
- 35) Umberson, D.(1989a). Relationships with children;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4) : 999-1012.
- 36) Umberson, D. & Gove, W.R.(1989b),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y, measurement and stage in the family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 440-462.
- 37) White, L. & Edwards, J.N.(1990). Emptying the nest and parental well-being; an analysis of national panel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 235-242.